



최근 헌법재판소는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내지 진술조력인’의 성립 진정 진술이 있는 경우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 2021. 12. 23. 2018헌바524). 이 결정에 따르면,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여 증언 및 반대신문을 한 경우에만 자기 피해 진술을 재판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진술권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인해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가 법정 증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당사자주의 법체계에서 반대신문은 증인과 당사자가 대화를 주고받음으로써 진실한 정보를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홍영기, 2014). 이는 상대측의 주장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증언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겨지기도 한다(Pichler, Powell, Sharman, Zydervelt, Westera, & Goodman-Delahunty, 2021; Cossins, 2009; Henderson, 2008).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은 증인의 진술에서 불일치를 발생시키는 것이다(Berman & Cutler, 1996; Prager, Moran, & Sanchez, 1992).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르면, 아동 피해자가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며, 아동은 생소한 어휘의 사용 및 낮은 법정 환경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안재경, 최이문, 2022), 불일치를 끌어내고 직면시키는 반대신문의 질문 특성은 이러한 신문방식에 취약한 아동 피해자의 진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판단자들은 아동 증인이

진술을 수정한 경우 해당 진술의 정확도가 높아졌는지와는 관계없이 신빙성을 낮게 판단할 수 있으며(Coburn, Connolly, Woiwod, Alder, & Bernstein, 2022),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McCauley & Parker, 2001; Bottoms & Goodman, 1994). 이는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 진술만을 증거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정현미, 2012). 현재 법원은 아동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증인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활용해오고 있다(안재경, 최이문, 2022). 여러 증인지원 절차 중에서 반대신문이 아동 증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법정 내 아동의 의사소통 과정을 조력하는 진술조력인 역할의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진술조력인의 수와 예산 부족의 문제로 인해 실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도중진, 2016), 진술조력인의 개입이 취약한 증인에 대한 사실판단자들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대신문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아동 증인의 진술 비밀관성과 법정 내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아동 증인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모의배심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

#### 아동 대상 반대신문의 문제점

반대신문은 허위 증언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유죄 판결부터 피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로 인식되어 왔다(Berman & Cutler, 1996; Walters, 1985). 한편,

반대신문은 증거와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공방을 벌이는 과정이며, 반대신문의 목적 자체가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도 있다(Szojka, Andrews, Lamb, Stolzenberg, & Lyon, 2017). 변호인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비밀관적인 진술을 끌어내 직면하게 만드는 전략을 주로 활용하는데(Berman & Cutler, 1996), 특히 아동의 발달 수준에 부적절한 질문 유형을 활용한다(Zajac, O'Neil, & Hayne, 2012). 예컨대, 변호인들은 유도, 암시 질문, 복잡한 질문, 모호한 질문 등 기억 및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을 사용하여 아동 증인과 증인의 신빙성을 공격한다(Zajac et al., 2012).

이러한 반대신문 과정은 성인보다 아동의 진술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 왔다. 아동은 의사표현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낮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술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amb, Malloy, Hershkowitz, & La Rooy, 2015), 실제로 법정에서 진술한 경험에 있는 아동 피해자들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고통스러움을 느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Eastwood & Patton, 2002). 또한, 일상적인 대화 관습에 의존할 수 없는 낮은 법정 분위기, 지지적이지 않은 반대신문의 구조, 부적절한 질문 유형의 사용은 법정 내에서 아동의 기억 회상이나 진술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Zajac, Gross, & Hayne, 2003). 특히, 아동 대상 반대신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발달 수준에 부적절한 질문은 성인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이 낮고 암시 취약성이 높은 아동의 진술 양과 질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aterman, Blades와 Spencer(2000)의 연구에서는 피암시성이 높은 어린 아동이 면담자의 질문

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ajac 등(2003)의 연구에서도 75%의 아동이 모호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질문에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응답하였다. 반대신문에서 변호인들이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 유형을 사용하는 경향과 이러한 유형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는 아동의 특성은 결과적으로 부정확하고 모순된 진술을 초래한다(Cossins, 2009). 아동은 기억에 저장된 정보가 정확하더라도 질문에 따라 증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며(Rightarts, Jack, Zajac, & Hayne, 2015), 증인의 비밀관적인 진술은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Collins, Harker, & Antonopoulos, 2017).

즉, 반대신문에서는 변호인들이 주로 아동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반대신문 과정은 피해 아동의 진술과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nna, Davies, Crothers, & Henderson, 2012). 그러나 반대신문은 무조건 증인의 진술신빙성을 탄핵하기보다 실제적 진실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안재경, 최이문, 2022), ‘아동’이라는 취약성이 범죄의 증명과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8헌바524)에 따라 아동이 반대신문에 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하게 된 현 시점에서 아동이 반대신문에 참여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진술 과정을 적절히 조력해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진술조력인 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7조에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공판 절차에 참여하여 아동 혹은 장애인과 같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가 진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 궁극적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김정혜, 2013). 진술조력인의 개입은 피해자 진술의 질을 높이고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현미, 2012). 호주,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취약한 증인의 법정 내 의사소통을 중개함으로써 완전하고 일관되며 정확한 증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 진술조력인(intermediary)을 활용하고 있다(Ministry of Justice, 2011). 영국에서는 수사 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재판과정에도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진술조력인은 판사, 변호인, 검사의 질문을 증인에게 설명해주고 그에 관한 증인의 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진술조력인은 질문이 아동의 발달 수준에서 이해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즉시 판사에게 수정을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김정혜, 2013).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2018헌바524)에 따라 사법절차 내에서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법무부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증인신문 절차 특례 신설을 공고하였다(법무부공고 제 2022-105호). 구체적으로, 미성년자가 재판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이용하여 재판을 실시함으로써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안 제40조의 3 신설). 또한, 재판장이 ‘전문조사관’을 통해 피해자를 신문하도록 하며(안 제26조의 2 신설),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은 중계시설에서 피해자와 동석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40조의 3 신설). 아동의 심리 및 조사면담 기법에 관해 교육받은 전문조사관은 아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아동 피해자가 질문을 쉽게 이해하고 수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한다는 점에서 기존 진술조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피해자가 중계시설 등을 통해 반대신문에 직접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아동의 정확한 기억 회상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아동 피해자의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는 기존 진술조력인의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에서 법정에서 동석하는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주로 피해자의 불안, 두려움 등 부정적 감정 완화 도우미에 치중되었고(김지영, 2022), 진술조력인의 수와 예산 부족의 문제로 인해 실제 진술조력인이 법정에서 동석하는 경우가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만큼(도중진, 2016), 진술조력인의 진술과정 개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2018헌바524)에 따라

반대신문 시 아동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의사소통적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전문조사관도 아동 피해자 법정 증언 시 의사소통 과정에 개입하는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진술조력인의 개입이 아동 증인 및 아동의 진술에 대한 사실판단자들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 아동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

반대신문에서의 진술은 주신문에서의 진술과 비교가 가능함에 따라 진술일관성이 배심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Zajac et al., 2012). 아동의 기억 능력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배심원과 심리학자들이 아동 증인은 성인보다 암시에 취약하고 낮은 기억 회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armey & Jones, 1983). 아동이 비일관적인 진술을 하게 되면 이는 아동의 기억 능력에 관한 배심원의 인식과 일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판단 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Leippe & Romanczyk, 1989). McAuliff와 Kovera(2012)의 연구에서는 배심원이 아동의 기억 능력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nhag과 Strömwall(2000)의 연구에서도 세 번의 인터뷰에 걸친 목격자 진술의 진실, 거짓을 판단하는데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자주 사용되는 지표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Berman, Narby와 Cutler(1995)은 검사 측 증인의 비일관적 진술에 노출된 모의배심원단이 이후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판단하여, 일관적인 증언에 노출된 사람에 비해 피고인이 유죄

일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작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 진술의 비일관성 또한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배심원들이 반대신문의 대상이 아동인 경우 부정확한 진술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실판단자들은 반대신문이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 증인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Zajac et al., 2012), Cashmore와 Trimboli(2006)의 연구에서는 배심원들이 아동 증인에게 반대신문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ajac 등(2012)의 연구에서도 배심원들은 반대신문이 아동의 발달 수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발생한 비일관적인 진술은 어느 정도 용인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배심원들은 아동이 성인과 비교하면 기억, 언어, 표현 능력이 미숙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반대신문 과정에서 진술이 비일관적이더라도 변호인의 부적절한 질문에 의한 문제일 가능성을 고려한다. 진술조력인은 아동 증인의 미숙한 표현 능력, 낮은 법정 환경에 대한 두려움, 스트레스, 변호인의 부적절한 질문 등 아동 증인의 증언 능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고려되는 요인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배심원들은 진술조력인의 개입이 있는 경우 아동 증인의 진술이 더 정확해질 것을 기대할 것이다. 진술조력인이 배심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Collins 등(2017)에서 배심원들은 진술조력인이 존재하는 경우 반대신문이 아동에게 더 적절하게 맞춰진 것으로 인식하였고, 아동과 변호인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술조력인이 재판에 개입하여 부적절한 질문을 수정한 경우 배심원이 아동 증인의 의사소통적 취약성을 낮게 평가하였으며, 진술의 진실성(trustfulness), 신빙성(credibility), 믿음성(believability)은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대위반이론

기대 위반 이론(Expectancy Violation Theory, 이하 EVT; Burgoon & Hale, 1988)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이 특정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하길 기대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접근한다고 가정한다. 기대는 주로 사회적 규범과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 알려진 특이점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형적이고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치를 위반하는 행동의 발생은 기대치 위반의 의미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해석과 평가 과정을 초래한다. 이러한 기대 위반 이론은 법적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methurst & Collins, 2019).

Ridley 등(2015)의 연구에서는 진술조력인의 존재가 아동에 대한 모의배심원의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진술조력인이 있는 경우 인터뷰의 질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lins 등(2017)의 연구에서는 진술조력인이 존재하는 재판에서 모의배심원이 아동 증인에 대해 더 편안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며, 암시 취약성이 낮고 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의배심원들은 아동 대상 반대신문에서 진술의 일관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진술조력인에 의해 제거될 것으로 기대함을 알 수 있다. McAuliff와 Kovera(2012)에서도 법정 내 아동 증인이 신뢰 관계인 동석 또는 중계시설 이용 등의 보호 조치를 받는 경우, 아동의 의사소통에 대한 배심원의 인식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조치의 영향이 배심원들에 의해 과대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배심원들은 일반적인 아동과 달리 도움을 받는 아동에 대해 두려움, 긴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낮을 것이라고 기대한다(McAuliff & Kovera, 2012).

진술조력인이 동석한 경우 아동의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으나(Plotnikoff & Woolfson, 2007), 이는 진술조력인의 존재 여부에 따른 조건 간 차이이기에 진술조력인이 법정에서 동석하는 것만으로 아동이 겪는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진술조력인은 아동이 경험하는 두려움 및 긴장의 수준을 낮추더라도 반대신문으로 인한 불안 정서가 아동의 진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여전히 반대신문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비밀관적인 진술은 배심원들의 기대에 위반된다. 이때 배심원들은 아동의 비밀관적 진술에 영향을 미친 외적 요인을 설명할 수 없다면 증인의 진술에 대해 부정적인 추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McAuliff & Kovera, 2012). 이는 반대신문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버리는 것이며, 진실을 말하는 아동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Smethurst & Collins, 2019). 기대 위반의 결과로 인해,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아동 증인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McAuliff &

Kovera, 2012).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취약한 아동 피해자의 진술 능력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문적인 지원체계 자체가 취약한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나 이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성폭력 범죄 사건 재판의 반대신문 상황에서 변호인이 아동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였을 때 진술조력인의 개입과 진술일관성이 진술신빙성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모의배심원은 반대신문에서 아동의 진술이 일관적인 경우 아동의 진술이 비일관적인 경우보다 진술신빙성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이다.

**가설 2.** 모의배심원은 반대신문에서 진술조력인이 개입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동의 불안 정서 수준을 더 낮게 평가할 것이다.

**가설 3.** 모의배심원은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의 부적절한 질문에 진술조력인의 개입이 있음에도 진술이 비일관적인 경우, 진술조력인의 개입 없이 진술이 비일관적인 경우보다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더 낮게 평가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M리서치 회사가 패널로 보유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

였다. 리서치 회사는 ‘아동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패널들에게 참가 메일을 발송하였고, 연구 내용과 참여에 대한 보상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패널을 모집하였다. 시나리오의 내용에 관해 묻는 문항에서 내용을 틀리게 보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참가자를 제외하고 총 186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 가운데 남성은 92명(49.5%), 여성은 94명(50.5%)이었다. 참가자들의 나이는 20대 43명(23.1%), 30대 51명(27.4%), 40대 55명(29.6%), 50대 28명(15.1%), 60대 9명(4.8%)이었다.

### 연구방법

#### 실험절차

본 연구는 2(반대신문에서의 진술일관성: ‘일관’, ‘비일관’) × 2(진술조력인 개입 여부: ‘있음’, ‘없음’)의 피험자 간 요인설계로 진행되었다.

실험 참여에 관한 안내문을 읽고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들은 4가지 모의재판 시나리오 중 하나의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성별,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질문 문항에 응답하였으며, 시나리오를 읽은 후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3가지 문항에 응답하였다. 이어서 각 조건 별 시나리오에서 조작된 내용을 참가자가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술이 얼마나 일관적이었는지와 비일관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이후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아동 피해자의 정서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에 순서대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의 본 목적에 관한 설명문을 읽은 후 설문

이 종료되었다. 전체 실험 절차를 수행하는 데는 약 20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DUIRB-202206-01)을 받아 진행되었다.

### 시나리오

본 연구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Tabak과 Klettke(2014)에서 사용된 시나리오와 아동 성폭력 판례(2019. 12. 10. 선고 2019고합141)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각색, 편집하여 제작하였다. 각색한 시나리오는 만 8세 아동 대상 강제추행 사건이다.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재판장의 법 용어와 배심원 역할 설명, 검사의 최초진술, 변호인의 최초진술, 검사 측 증인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순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검사의 증인신문 시나리오는 도입 문답 2쌍, 범죄사실에 관한 문답 15쌍, 마무리 문답 1쌍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조건의 참가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변호인의 반대신문 시나리오는 검사의 증인신문 시나리오 중 범죄사실에 관한 문답에서 파악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비일관적 진술 조건의 시나리오는 아동이 피고인 집에 가게 된 경위, 사건 당시 보았던 TV 프로그램, 가해자의 위치, 추행 시간에 관한 검사 측 증인신문과 반대신문의 진술 내용이 불일치한 것으로 구성되었으며, 일관적인 진술 조건의 시나리오에서는 전술한 4가지 내용에 관한 검사, 변호인의 질문에 아동이 일관된 답변을 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비일관적인 진술 조건에서 아동 피해자는 사건 당시 보았던 TV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증인신문에서는 ‘시크릿 쥬쥬’ 만화를 보았다고 진술하

였지만 반대신문에서는 ‘짱구’를 보았다고 진술을 수정하였다. 이때 변호인이 아동에게 증인신문에서의 답변과 반대신문에서의 답변 중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면서 진술 간 모순이 드러나게 된다. 일관적인 진술 조건에서는 아동이 주신문에서의 답변과 동일하게 ‘시크릿 쥬쥬’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진술조력인의 개입이 존재하는 조건의 시나리오에서는 비일관적인 진술이 나타난 문답 쌍 중 변호인의 부적절한 질문 4가지를 진술조력인이 수정하여 전달하였다. 변호인이 아동에게 ‘시크릿 쥬쥬’라는 만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라고 질문할 때, 여러 가지 사실을 동시에 묻는 복잡한 질문을 사용하였다. 이에 진술조력인은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는 점을 재판장에게 이야기하였고, 재판장이 변호인에게 질문 수정을 요청하였다. 진술조력인의 개입이 없는 조건에서도 변호인은 아동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였으나 진술조력인과 재판장이 개입하여 질문을 수정하는 절차 없이 아동이 바로 답변을 하였다. 아동의 진술이 비일관적이고, 진술조력인이 개입한 반대신문 시나리오의 일부를 부록에 제시하였다.

###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으로 아동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모의배심원의 판단을 측정하기 위해 Krähenbühl(2012)가 고안하고 Krähenbühl(2019)가 수정한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표 1 참조).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6 = 매우 그렇다). 8개 문항의 내적일치도는(Cronbach's  $\alpha$ )는 .895였다. 반대신문 내 아동이 겪는 불안 정서에 대한 배심원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의



표 1. 진술신빙성 판단 및 아동 피해자의 불안 정서 수준에 대한 인식 측정 문항

진술신빙성 판단 측정 문항	사건에 대한 증인의 기억은 정확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 평결을 내릴 것이다.	
	증인은 변호인에게 진실을 말하였다.	
	증인은 변호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증인은 자신의 진술에 대해 확신하였다.	
	증인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사건에 대한 증인의 진술은 명확했다.	
	사건에 대한 증인의 진술은 완전했다.	
아동 피해자의 불안 정서 수준에 대한 인식 측정 문항	긴장	아동 증인은 긴장하였다.
	두려움	아동 증인은 두려웠다.

‘긴장’과 ‘두려움’ 수준을 6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6 = 매우 그렇다).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 = -16.458, p < .001$ .

아동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진술조력인의 개입 여부와 아동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배심원의 진술신빙성 판단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조건 별 진술신빙성 판단 평균 점수는 표 2, 이원분산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진술일관성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82) = 154.940, p < .001$ . 아동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인 경우( $M = 5.10, SD = .81$ )보다 비일관적인 경우( $M = 3.38, SD = .98$ ) 진술신빙성을 더 낮게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설 1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진술조력인 개입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F(1, 182) = 1.298, p = .256$ , 진술조력인과 진술일관성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F(1, 182) = .014, p = .905$ .

결 과

조작검증

진술신빙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시나리오를 읽은 참가자가 진술일관성 조건에 따라 조작한 진술일관성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증언이 얼마나 일관적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문항에 11점 척도(0 = 완전히 비일관적이다, 10 = 완전히 일관적이다)로 응답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진술이 일관적인 시나리오를 읽은 배심원집단( $M = 9.92, SD = 1.63$ )보다 진술이 비일관적인 시나리오를 읽은 배심원집단( $M = 5.20, SD = 2.19$ )이 피해자 증언을 유의미하게 더 일관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각 조건에 맞게 진술일관성 정도를 잘

표 2. 진술신빙성 판단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진술일관성	N	M	SD
진술조력인 있음	비일관	56	3.31	.95
	일관	37	4.99	.91
진술조력인 없음	비일관	52	3.45	1.20
	일관	41	5.16	.73

표 3. 진술신빙성 판단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변산원	df	F	$\eta^2$	p
진술조력인(A)	1	1.298	.007	.256
진술일관성(B)	1	159.940	.460	.000
A X B	1	.014	.000	.905
오차	182	(.841)		

주. 괄호안의 수치는 오차제곱평균(MSE)을 나타냄.

#### 아동 피해자의 불안 정서에 대한 인식

진술조력인의 개입이 아동 피해자의 불안 정서에 대한 모의배심원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진술조력인 개입의 주효과와,  $F(1, 182) = .052, p = .819$ , 진술일관성의 주효과,  $F(1, 182) = 2.421, p = .121$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각 조건 별 피해자의

불안 정서 수준에 대한 인식 평균 점수는 표 4,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82) = 8.069, p < .01$ . 모의배심원은 아동의 진술이 비일관적일 때, 진술조력인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 $M = 4.56, SD = 1.02$ )보다 개입한 경우( $M = 4.13, SD = 1.13$ ) 아동의 불안 정서 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진술이 일관적인 때는

표 4. 아동 피해자의 불안 정서 수준 인식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진술일관성	N	M	SD
진술조력인 있음	비일관	56	4.13	1.13
	일관	37	4.34	1.13
진술조력인 없음	비일관	52	4.56	1.02
	일관	41	3.83	1.19

표 5. 아동 피해자의 불안 정서 수준 인식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변산원	df	F	$\eta^2$	p
진술조력인(A)	1	.052	.000	.819
진술일관성(B)	1	2.421	.013	.121
A X B	1	8.069	.042	.005
오차	182	(1.241)		

진술조력인이 개입한 경우( $M = 4.34, SD = 1.13$ )보다 개입하지 않은 경우( $M = 3.83, SD = 1.19$ ) 아동의 불안 정서 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아동 성폭력 범죄 사건 재판의 반대신문 상황에서 변호인이 아동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였을 때 진술조력인의 개입과 아동 피해자의 진술일관성이 배심원의 진술신빙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모의배심원들은 아동의 진술이 일관적일 때보다 비일관적일 때 진술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아동의 기억 능력이 낮을 것이라는 배심원의 인식에 부합하는 진술이 나타나면, 배심원들은 그러한 진술을 더욱 크게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Leippe & Romanczyk, 1989). 본 연구의 반대신문 시나리오에서는 변호인이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모의배심원이 진술의 비일관성에 주목하여 진술신빙성 판단을 하는 경우 변호인 행동의 적절성을 고려하는 지 살펴보기 위해 반대신문 내 변호인의 행동이 아동에게 적절하였는지에 관한 인식을 측

정한 후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진술일관성이 진술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변호인 행동의 적절성에 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배심원들은 아동 진술의 비일관성을 고려할 때, 반대신문 내 변호인의 행동이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아동이 반대신문 내 변호인의 공격적인 행동에 영향을 받아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할 경우에도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문제를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영상녹화 진술 증거 특례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은 진술신빙성 탄핵을 위해 공격하는 과정, 즉 반대신문에 아동을 참여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아동이 발달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낮은 법정 환경에서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 수준을 줄여줄 수 있다(Plotnikoff & Woolfson, 2007). 본 연구에서는 반대신문 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진술조력인의 개입에 의해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술조력인의 개입이 배심원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

았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부적절한 질문에 진술조력인이 개입하는 것이 아동의 진술에 대한 배심원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진술조력인의 개입은 아동의 불안 정서에 대한 모의배심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의배심원들은 진술조력인의 개입이 아동의 부적 정서 완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거나 판단 시 진술조력인의 개입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진술조력인 개입하였음에도 진술이 비일관적일 경우 공격적인 반대신문의 영향보다 아동의 내적 요인에 귀인하여 진술 신빙성을 더 낮게 판단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연구 결과에서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반대신문 내 아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Collins 등(2017)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에서는 조건과 관계없이 변호인이 아동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였고,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설명되지 않았으므로 배심원들은 진술조력인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배심원은 아동의 진술이 일관적일 때 진술조력인이 없는 경우보다 진술조력인이 개입한 경우 아동의 불안 정서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는 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져 보호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배심원이 진술조력인의 역할보다 아동의 진술 능력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만약 배심원들이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필요성 및 아동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이해한다면, 연구의 결과

가 달라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대상 반대신문에서 진술조력인 제도를 활용할 경우 진술조력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배심원 설시에 포함해야 할 것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시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밀관적 진술이 진술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모의배심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의재판 정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비밀관적인 조건에서 사용된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비밀관성을 보여주는 진술을 연속적으로 포함하면서 다른 사실에 대한 진술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관적인 진술에 무게가 실렸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현실 타당도가 높은 시나리오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재판 시나리오는 8세 여아에 대한 성범죄 사건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다른 성별, 연령, 범죄 유형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남성, 8세 미만, 청소년 등 다양한 피해자 유형과 아동학대 등 다른 범죄 유형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시나리오에서 변호인은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의 질문이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절했는지에 관한 배심원의 인식을 측정하지 않아 모의배심원이 질문의 부적절함을 고려하여 진술신빙성을 판단하였는지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질문에 관한 배심원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진술조력인의 역할에

관한 기대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아 진술조력인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진술조력인의 역할 관한 인식을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진술조력인 제도에서 나아가 전문조사관 제도의 개선 및 아동 피해자의 의사소통 과정을 조력하는 전문가에 관한 배심원 교육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이후 아동 피해자는 진술신빙성 탄핵을 위해 날 선 공방을 벌이는 반대신문에 참여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반대신문 상황에서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보호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된 시점에서 진술조력인의 개입이 아동에 대한 배심원들의 인식 및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반대신문 과정에 참여하는 아동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중요성과 아동의 의사소통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전문 제도에 관한 배심원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정혜 (2013). 진술조력인의 의의와 역할-성폭력 범죄 피해 장애인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69, 33-88.
- 김지영 (2022). 장애인복지법상 진술조력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회법연구*, 48, 625-660.
- 도중진 (2016).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제도의 실효화방안. *법학연구*, 19(2), 33-60.
- 안재경, 최이문 (2022). 시간의 경과가 아동진술에 미치는 영향: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조항 위헌결정에 대한 법심리학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33(2), 127-161.
- 정현미 (2012).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제도. *이화젠더법학*, 4(1), 73-95.
- 홍영기 (2014). 형사소송법의 최근 쟁점; 반대신문권 보장: 전문법칙의 근거. *고려법학* 75, 1-43.
- Berman, G. L., & Cutler, B. L. (1996). Effects of inconsistencies in eyewitness testimony on mock-juror decision mak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2), 170-177.
- Berman, G. L., Narby, D. J., & Cutler, B. L. (1995). Effects of inconsistent eyewitness statements on mock-jurors' evaluations of the eyewitness, perceptions of defendant culpability and verdicts. *Law and Human Behavior*, 19(1), 79-88.
- Burgoon, J. K., & Hale, J. L. (1988). Nonverbal expectancy violations: Model elaboration and application to immediacy behaviors. *Communications Monographs*, 55(1), 58-79.
- Cashmore, J., & Trimboli, L. (2006). Child sexual assault trials: A survey of juror perceptions. *Crime and Justice Bulletin*, 102(1), 1-20.
- Coburn, P. I., Connolly, D. A., Woivod, D. M., George Alder, A., & Bernstein, D. M. (2022). Cross-examination may be more detrimental to repeated-event children than single-event children. *Memory*, 30(6), 715-724.
- Collins, K., Harker, N., & Antonopoulos, G. A. (2017). The impact of the registered intermediary on adults' perceptions of child

- witnesses: Evidence from a mock cross examination.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23(2), 211-225.
- Cossins, A. (2009). Cross-examination in child sexual assault trials: Evidentiary safeguard or an opportunity to confuse?. *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33(1), 68-104.
- Eastwood, C., & Patton, W. (2002). *The experiences of child complainants of sexual abus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 156). Canberra, Australia: Criminology Research Council.
- Granhag, P. A., & Strömwall, L. A. (2000). Effects of preconceptions on deception detection and new answers to why lie-catchers often fail. *Psychology, Crime and Law*, 6(3), 197-218.
- Hanna, K., Davies, E., Crothers, C., & Henderson, E. (2012). Questioning child witnesses in New Zealand's criminal justice system: Is cross-examination fair?.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9(4), 530-546.
- Krähenbühl, S. (2012). 'Does the jury really need to hear it all?': The effect of evidence presentation practice on jury assessment of children's eyewitness testimony. *Psychology, Crime & Law*, 18(9), 847-858.
- Krähenbühl, S. (2019). Mock jurors' perceptions of a child witness: the impact of the presence and/or intervention of a registered intermediary during cross-examination. *Psychology, Crime & Law*, 25(7), 713-728.
- Lamb, M. E., Malloy, L. C., Hershkowitz, I., & La Rooy, D. (2015). Children and the law. In M. E. Lamb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and developmental science*, (pp. 464-512). Hoboken, NJ: Wiley.
- Leippe, M. R., & Romanczyk, A. (1989). Reactions to child (versus adult) eyewitnesses. *Law and Human Behavior*, 13(2), 103-132.
- McAuliff, B. D., & Bull Kovera, M. (2012). Do jurors get what they expect? Traditional versus alternative forms of children's testimony. *Psychology, Crime & Law*, 18(1), 27-47.
- McCauley, M. R., & Parker, J. F. (2001). When will a child be believed? The impact of the victim's age and juror's gender on children's credibility and verdict in a sexual-abuse case. *Child Abuse & Neglect*, 25(4), 523-539.
- Ministry of Justice. (2011). *Achieving best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London: Ministry of Justice.
- Pichler, A. S., Powell, M., Sharman, S. J., Zydervelt, S., Westera, N., & Goodman-Delahunty, J. (2021). Inconsistencies in complainant's accounts of child sexual abuse arising in their cross-examination. *Psychology, Crime & Law*, 27(4), 341-356.
- Plotnikoff, J., & Woolfson, R. (2007). *The 'Go-Between': evaluation of intermediary pathfinder projects*. UK: Lexicon Limited.
- Ridley, A. M., Van Rheede, V., & Wilcock, R. (2015). Interviews, intermediaries and interventions: Mock-jurors', police officers' and barristers' perceptions of a child witness interview. *Investigative Interviewing: Research and Practice*, 7(1), 21-35.
- Righarts, S., Jack, F., Zajac, R., & Hayne, H. (2015).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cross-examination style questioning: The effects of delay and subsequent questioning. *Psychology*,

- Crime & Law*, 21(3), 274-296.
- Smethurst, A., & Collins, K. (2019). Mock Jury Perceptions of Vulnerable Defendants Assisted in Court by Intermediaries-Are Juror's Expectations Violated?. *Applied Psychology in Criminal Justice*, 15(1), 23-40.
- Szojka, Z. A., Andrews, S. J., Lamb, M. E., Stolzenberg, S. N., & Lyon, T. D. (2017). Challenging the credibility of alleged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in Scottish court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23(2), 200-210.
- Tabak, S. J., & Klettke, B. (2014). Mock jury attitudes towards credibility, age, and guilt in a fictional child sexual assault scenario.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6(1), 47-55.
- Waterman, A. H., Blades, M., & Spencer, C. (2000). Do children try to answer nonsensical question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211-225.
- Yarmey, A. D., & Jones, H. E. T. (1983). Is eyewitness identification a matter of common sense? In S. M. A. Lloyd-Bostock & B. R. Clifford (Eds.), *Evaluating witness evidence* (pp.13-40). London: Wiley.
- Zajac, R., Gross, J., & Hayne, H. (2003). Asked and answered: Questioning children in the courtroom.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0(1), 199-209.
- Zajac, R., O'Neill, S., & Hayne, H. (2012). Disorder in the courtroom? Child witnesses under cross-examination. *Developmental Review*, 32(3), 181-204.

1 차원고접수 : 2023. 02. 11.  
심사통과접수 : 2023. 03. 28.  
최종원고접수 : 2023. 03. 29.

## **Effects of intermediary and statement inconsistency of child witness during cross-examination on mock juror's judgment of statement credibility**

**Hyemin Shin**

**Eunkyung Jo**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

Recentl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rovisions allowing video-recorded statements of underage sexual abuse victims as evidence were unconstitutional. As child victims have to participate in the cross-examination, the role of intermediaries might be increased to aid child witnesses' communication in cour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an intermediary's intervention affects mock jurors' perception of statement credibility. Based on Expectancy Violation Theory, we hypothesized that when a lawyer asks inappropriate questions to a child witness during cross-examination, if the child's statement is inconsistent despite the intervention of an intermediary, mock jurors would perceive the child as less credible. In a 2(intermediary present vs. not present) x 2(statement consistent vs. inconsistent) between-subjects experiment, 186 adult participants read one of the four sexual abuse case scenarios and then judged the credibility of a child witness. As a result, the credibility was judged lower when the child's statements were inconsistent than when they were consistent. The intervention of the intermediary did not affect the mock juror's perception of the child's anxiety level, and there was no expectancy violation effect by the intermediary.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oblems of child witness cross-examination and the need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termediary's role were discussed.

*Key words* : cross-examination, intermediary, credibility, child victim, statement inconsistency



## 부 록

### 재판 시나리오

귀하는 2019고합 000 만 8세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배심재판에 참여하는 것처럼 다음의 재판 시나리오를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성실한 참여는 국민참여재판 연구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 ○ 재판장의 법용어와 배심원 역할 설명

재판장 : 국민참여재판이란 (중략) 2019고합 000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사의 최초진술이 있겠습니다.

#### ○ 검사의 최초진술

검사 : 피고인 강민석은 (중략) 피해자(만 8세)의 가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강민석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합니다.

#### ○ 변호인의 최초진술

검사 : 피고인 강민석은 무죄입니다. (후략)

#### ○ 검사 측 증인신문

검사 : 우리는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알고 있나요?

증인 : 강민석아저씨 이야기하러 왔어요.

(중략)

검사 : 누워서 TV 봤구나.

증인 : 네.

검사 : TV로 어떤 프로그램 봤어요?

증인 : 시크릿 쥬쥬. 저녁마다 봐요.

(중략)

검사 : 아저씨가 어떻게 만졌어요?

증인 : (주먹을 쥐었다 폄다 하며) 이렇게. 찌찌 주물주물.

검사 : 몇 번?

증인 : 음.. 이렇게.. 엄청 많이. 계속.

검사 : 그리고는?

증인 : 그리고 TV보는데 만졌어요.

검사 : 우리는 아저씨가 만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증인 : 싫은 생각.

검사 : 이상입니다.

○ 변호인 측 반대신문

재판장 : 변호인 반대신문 하세요.

변호인 : 네. 우리는 평소에도 아저씨 집에 자주 갔었죠?

증인 : 음..네.

(중략)

변호인 : TV로 시크릿 쥬쥬라는 만화 봤다고 했는데, 맞아요?

증인 : (끄덕)

변호인 : 그럼 그때 우리가 본 시크릿 쥬쥬 만화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누가 나와서 뭐 했는지 구체적으로.

증인 : 음...

조력인 : 질문이 어렵습니다. 더 간단하게 수정해주세요.

재판장 : 변호인, 질문 수정하세요.

변호인 : 아저씨 집에서 봤던 TV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줄래요?

증인 : 음... 쟁구 봤던 거 같아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변호인 : 시크릿 쥬쥬가 아니라 쟁구를 봤다는 건가요?

증인 : 네. 쟁구요.

(중략)

변호인 : 그럼 아저씨가 우리 엄청, 많이, 계속 만졌다고 했는데, 오래 만졌어요?

증인 : 오래..

변호인 : 몇 초 정도? 몇 분 정도? 기억해요?

조력인 : 재판장님, 아동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질문입니다.

재판장 : 변호인 질문을 증인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세요.

변호인 : 아저씨가 우리 얼마나 오래 만졌어요?

증인 : 음.. 1..2..3초. 짧게

변호인 : 엄청, 많이, 계속 만졌다고 진술한 것과 짧게 만졌다고 진술한 것 중 뭐가 맞는 거죠?

증인 : 짧게 만졌어요.

변호인 : 이상입니다.